

‘-기라도 하-’ 구문의 의미와 기능 - 일본어 및 중국어 대응 표현과의 비교를 곁하여 -

심 지 영

(세종대학교 교수, 제1저자)

포 연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공동저자)

엔카이 모에

(서울대학교 석사수료, 공동저자)

박 진 호

(서울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 국문초록

‘-기라도 하-’는 “대안집합의 원소들 중 선택의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을 상정함”이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최우선적 선택항이 아님을 나타내는 보조사 ‘-라도’, 실현되지 않은 사태를 나타내는 명사형 어미 ‘-기’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기본 의미는 비유, 조건, 의문, 명령·요구, 청유·권유, 소망·바람, 의무 등의 구문에서 다양하게 변조되어 실현된다. 감탄, 대조 등을 나타내는 구문에서는 실현된 사태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 일본어의 ‘동사연용형+でもする’는 ‘-기라도 하-’와 형태·의미 양면에서 매우 유사하나, 비실현 사태에 한정되어 쓰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중국어는 이에 대응하는 하나의 표현을 찾기는 어려우나 양보를 나타내는 ‘哪怕…也’에 대응하기도 하고, ‘起碼/至少’나 ‘就’ 등을 써서 최우선적 선택항이 아님을 나타낼 수도 있다.

주제어 : 대안집합, 척도, (비)실현, 선택의 우선성, 최우선적 선택항

1. 들어가기 - 연구의 대상과 목적

본 연구는 보조사 ‘-라도’가 결합된 여러 표현 중 ‘-기라도 하-’구문이 매우 다양한 쓰임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쓰임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라도 하-’ 구문이 일본어·중국어 등 다른 언어에서 어떤 표현과 대응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으며 한국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려 하였다. 이미 보조사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 수준으로 축적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조사 통합구문의 의미와 기능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한국어 교육이나 번역 등 응용적 측면을 위해서는 보조사 통합 구문들 자체의 쓰임을 밝혀 두는 것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다른 언어에서의 대응 표현을 제시해 준다면 소기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라도 하-’가 쓰인 예문을 종류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은 말뭉치¹⁾에서 추출한 실제의 예들을 충분히 살펴본 후 그 쓰임에 따라 대략적인 유형을 나눈 것이다.²⁾

- (1) 그녀는 마치 귀신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뉘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비유)

1) 한국어의 경우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를 위한 기초 연구’(국립국어원 발주. 연구책임자: 이삼형 교수) 사업에서 구축한 29억 어절 규모의 원시 말뭉치를 이용하였다. 일본어의 경우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일본어 문어 균형 코퍼스 2009 모니터판)을 이용하였다.

2) 각 예문 뒤 괄호 안에 제시한 표찰은 ‘-기라도 하-’의 넓은 사용 범위를 보여 주기 위한 편의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해당 예문이나 그 속의 ‘-기라도 하-’의 의미를 정확하게 집어서 나타내려는 의도는 아니다. 또 분류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성격과 목적 상 이론적 정합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응용의 편의성을 우선하였기 때문이다. 즉, 각 유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 (2) 우리 딸 털끝 하나 건드리기라도 해 봐, 가만있지 않을 테니.
(명령조건)
- (3) 그때 우리가 싸움을 말리기라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반사실적 조건)
- (4) 왜 울고 있니? 친구가 놀리기라도 했어? (질문)
- (5) 300만 원 짜리 구두를 사다니, 어디에 머리를 부딪치기라도 했니? (반어 질문)
- (6) 이기기가 어려우면 비기기도 해라. (명령)
- (7) 건강을 위해서 다른 건 못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라도 하자.
(청유)
- (8) 우승은 바라지도 않는다. 결선에 올라가기라도 했으면... (기원)
- (9)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하기도 해야지. (비난)
- (10) 저렇게 뛰다가 다치기도 할까 봐 걱정이다. (경계)
- (11) 피를 팔기도 해서 아이들 교육은 시키겠다. (의지)
- (12) 너는 손에 돈을 쥐어보기도 했지, 나는 냄새도 못 맡아봤다.
(대비)
- (13) 살아있으니 이렇게 보기도 하는구나. (감탄)

위 예문들에서 보듯이 ‘-기라도 하-’ 구문은 평서문·의문문·명령문·청유문 등의 문장 유형에 모두 쓰일 수 있으며 ‘비유·명령 조건·반사실적 조건·반어 질문·의지 미래’ 등을 두루 구성할 수 있다. 또 그 뿐 아니라 ‘후회·비난·명령·요구·경계·기원·감탄’ 등의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또, (1)에서 (11)까지의 예에서 ‘-기라도 하-’가 나타내는 사태가 ‘비실현’ 상태로 보인다면 (12)와 (13)에서는 ‘실현’된 사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여러 문형에서 다양한 의미와 기능으로 쓰인다는 점 외에도 ‘-기라도 하-’ 구문에는 몇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 우선 아래 (14)와 같이 보조사 ‘-라도’를 ‘V기라도’ 외에 다른 곳에 바꿔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5)처럼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14) 가. 왜 그렇게 낮놓고 서 있니? 귀신을 보기라도 한 거야?
 ≒ 왜 그렇게 낮놓고 서 있니? 귀신이라도 본 거야?
 나.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하기라도 해야지.
 ≒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 (15) 너는 손에 돈을 쥐어보기라도 했지. 나는 냄새도 못 맡아봤다.
 ≠ ? 너는 손에 돈이라도 쥐어봤지. 나는 냄새도 못 맡아봤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보조사의 작용역이 동사구 일 때 보조사는 동사구 전체에 붙을 수도 있고 그 안의 한 요소에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보조사의 작용역은 선행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蛇でも見たように ≒ 蛇をみでもしたように).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위 (15)번의 ‘돈을 손에 쥐어보다’와 ‘(돈의) 냄새를 맡아보다’와 같이 대안집합의 요소들이 문장 안에서 대립하고 있을 때는 변별의 핵심을 이루는 쪽에 보조사를 붙여야 한다.³⁾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아래 (16)과 (17)을 보면 ‘-기라도 하’ 구문이 동일한 형태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 (16) 그렇게 떠들다가 아이가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 (17) 완전히 회복될 수 없어도 좋다. 아이가 깨어나기라도 하면 바람
 것이 없겠다.

(16)에서는 아이가 깨는 것을 ‘경계, 기피’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17)에서는 아이가 깨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른 의미를 어떻게 ‘-기라도 하’라는 동일한 구

3) 이 외에도 특수한 경우로 ‘라도’가 부정대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호환되지 않는다. (신문은 규정만 지킨다면 누구라도 만들 수 있다. ≠ 신문은 규정만 지킨다면 누가 만들기라도 할 수 있다.)

문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또한 아래 (18)과 (19)의 경우, 비싼 구두를 샀다는 동일한 사태를 놓고 그에 대한 원인/이유를 ‘-기라도 하-’ 구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18) 500만 원 짜리 구두를 사다니, 어디에 머리를 부딪히기라도 했니?

(19) 500만 원 짜리 구두를 산 걸 보니, 복권에 당첨되기라도 한 모양이네.

(18)에서는 선행절 사태를 매우 황당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선행절 사태에 대한 원인/이유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사태를 후행절에서 표현할 때 ‘-기라도 하-’가 사용되었다. 반면에 (19)에서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선행절 사태가 일어난 것을 사실로서 수용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원인/이유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사태를 후행절에서 제시할 때 ‘-기라도 하-’가 사용되었다. (18)과 (19) 모두 선·후행절에 표현된 사태가 극단적이고 발생 확률이 낮은 사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그래서 (18)과 (19) 모두 ‘-기라도 하-’가 사용되었을 터이나), 발생한 사태를 얼마나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태도의 측면에서는 이 둘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태의 합리성이라는 하나의 척도 상에서 매우 다른 값을 가지는 사태들이 공통되게 ‘-기라도 하-’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기라도 하-’ 구문이 가지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비록 모여 화자들은 직관에 따라 적재적소에 가려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이 구문이 가지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쓸 수 없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라도 하-’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형식과 맥락에 전형적으로 출현하는지, 그 각각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

업은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보다 조밀하게 기술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에 더해 한국어교육이나 번역, 사전 편찬 등에도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기라도 하-’ 구문의 기본 의미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기라도 하-’는 선행 동사(혹은 드물게 형용사) 어간에 전성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형을 만든 후 다시 보조사 ‘라도’와 형식동사 ‘하-’가 결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V	+	기	+	라도	+	하-
(동사 어간)		(명사형 어미)		(보조사)		(형식동사)

특정 구문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들의 의미 특성과 어떻게든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라도 하-’가 가지는 의미는 보조사 ‘-라도’ 및 명사형 어미 ‘-기’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단순히 결합한 것이 그대로 구문의 특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기라도 하-’라는 덩어리 전체가 가지는 특유의 의미 기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단어나 구문이 의미의 확장 과정을 거칠 때 원형 의미(기본 의미)를 일부라도 공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원형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라도 하-’ 구문 전체의 실제 쓰임을 살펴 해당 구문의 의미를 확정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문의 각 구성 요소들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살피는 것이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본 (1)에서 (12)까지의 예문들은 ‘-기라도 하-’ 구문이 쓰

일 수 있는 문장의 유형과 여러 맥락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시한 것인데, 이들 예만 보더라도 그 쓰임과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된 기본 의미로 수렴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들 사이에 공통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겉으로 보기에 매우 이질적인 것 같은 각각의 기능들이 이 기본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말뭉치를 통한 관찰에서 얻어진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에서 생각하는 ‘-기라도 하-’ 구문의 기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대안집합의 원소들⁴⁾ 중 선택/발현의 우선성이 낮은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채택을 상정함’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줄이면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 상정” 정도로 표시할 수 있겠다. 이때 ‘(발현/선택의) 우선성’이란 무엇인가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것이 단일한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개연성, 가능성, 당위성, 타당성, 선호도, 빈도 등의 다양한 척도를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또 ‘채택 상정’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대안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채택된 것으로 부각됨을 뜻하는데, 그것이 실제 세계에서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화자 머릿속의 가능 세계에서는 상정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문 전체의 의미가 구문 내부 요소들의 의미와 무관하게 생겨난 것은 아니다.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 상정’이라는 의미 성분 중에서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한다는 것은 보조사 ‘-라도’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되는데, ‘-라도’에 대한 사전의 기술을 인용하면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것이

4) 대안집합의 원소들은 어떤 정도성 기준에 따라 일렬로 줄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고(즉 척도(scale)를 구성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이 느슨하거나 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척도를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느슨하게 ‘대안집합의 원소들’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기라도 하-’ 구문의 경우 대안집합의 원소들이 척도를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상정’이라는 의미 성분은 명사형 어미 ‘-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기’는 아직 결정·확정되지 않은 사태에 쓰인다거나 사실판단 유보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거듭 지적되어 왔는데 이러한 특성이 ‘-기라도 하-’ 구문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⁵⁾

그동안 보조사 ‘-(이)라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데, 다양한 용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의미를 밝히려 한 연구가 있고 실제의 쓰임에 따라 유형별로 의미를 나누어 제시하려 한 연구가 있다. 그 중 기본 의미를 밝히려 한 경우, 목표대로 기본 의미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고도로 추상화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작 실제 쓰임과의 연계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있었다.

본고에서 ‘-기라도 하-’의 기본 의미를 추상적인 하나의 단어로 제시하지 않고 비교적 길게 제시한 이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동시에 선행 연구들의 통찰을 한데 수렴하기 위해서이

5) ‘-기라도 하-’에서 ‘-기’는 통사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요소로서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고 보는 관점도 가능하다. 한국어에서 조사는 체언에는 붙을 수 있으나 용언 어간에는 붙을 수 없다. 만약 의미상의 필요에 의해 용언에 조사를 붙일 필요가 있으면, 우선 용언 어간에 명사형 어미를 붙여 명사화시킨 다음에 조사를 붙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원래 용언 어간 뒤에 붙을 어미에도 문제가 생긴다. 한국어에서 어미는 용언 어간이나 다른 어미 뒤에는 붙을 수 있거나 조사 뒤에는 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언 어간 + 조사 뒤에 형식 용언 ‘하-’를 삽입하여 어미의 결합상의 제약을 충족시킨다. 예컨대 ‘먹고’라는 용언 활용형에서 (활용형 전체가 아니라) 용언 ‘먹-’에 보조사 ‘-만’을 붙이고 싶을 때 직접 붙일 수 없으므로 ‘-기’를 먼저 붙인 뒤에 ‘-만’을 붙이는 것이며, 이 경우 원래의 어미 ‘-고’는 ‘먹기만’ 뒤에 붙을 수 없으므로 형식 동사 ‘하-’를 삽입한 뒤에 ‘-고’를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에 대한 이러한 분석 가능성을 열어 놓지만, 그 경우에도 ‘-기’의 의미가 ‘-기라도 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명사형 어미 ‘-음’이 아니라 ‘-기’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음’과 대비되는 ‘-기’의 특성이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도 하다. 기존 연구에서 보조사 ‘-라도’의 기본 의미로 ‘양보’, ‘불택(不擇: 가리지 않음)’, ‘최종적 선택’, ‘미흡’, ‘차선’ 등이 거론되어 왔는데, 본고에서 제시한 ‘선택의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 상정’이라는 말 자체에 양보, 미흡, 차선, 최종적 선택 등의 개념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는 또 다른 명사형 어미인 ‘-음’과 비교할 때 ‘결정성’(심재기 1979, 1982) 혹은 ‘확정성’의 대립이 있음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현실(realis)’과 ‘비현실(irrealis)’ 간의 대립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이효상 1991, 최동주 1995, 박재연 2004, 문숙영 2005). 또 박병선·박진호(1999:135)에서는 ‘-기’가 사실 판단 유보의 양태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김일환(2005)에서는 ‘-기’의 특이성으로 [비존재]를 제시하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나 사태를 표시한다고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기라도 하-’ 구문의 기본 의미를 설정함에 있어 명사형 어미 ‘-기’의 의미적 특징에 대한 상기의 연구 결과들을 ‘상정’이라는 말에 반영하였다. 위 예문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라도 하-’는 조건, 명령, 질문, 비유, 기원 등 주로 비실현 사태에 쓰이지만 그렇다고 실현된 사태에 쓰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어서 예문 (12)와 (13)에서는 사태가 실현된 것으로 읽힌다. 다시 말해서 비실현 사태에 더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비실현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아닌지는 문장 유형, 시제, 담화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본고에서 주장하는 “우선성 낮음에도 채택 상정”의 기본 의미가 앞에서 제시한 용례들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그녀는 마치 귀신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낯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다.”

- 척도 구성 기준 : 후행 사태의 원인으로서의 개연성 - 낮음
- 대안집합 : {... 귀신을 보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다, 놀랄 만한

소식을 듣다 ...}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비유

(2) “우리 딸 털끝 하나 건드리기라도 해 봐, 내가 가만있지 않을 테니.”

- 척도 구성 기준 : 후행절 행위를 실행할 이유로서의 타당성 - 최저

- 대안집합 : {털끝 하나 건드리다 ... 욕하다, 때리다 ... 죽이다}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명령조건

(3) “그때 우리가 말리기라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척도 구성 기준 : 후행절 사태 실현 조건으로서의 적합성 - 낮음

- 대안집합 : {... 말리다, 반대하다, 맞서 싸우다, 신고하다 ...}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반사실적 조건

(11) “피를 팔기라도 해서 아이들 교육은 시키겠다.”

- 척도 구성 기준 : 후행절 사태 실현 방법으로서의 타당성/적합성 - 낮음

- 대안집합 : {... 피를 팔다, 폐지를 줍다, 장사를 하다 ...}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의지 미래

(13) 살아있으니 이렇게 보기라도 하는구나.

- 척도 구성 기준 : 희망하는 사태에 대한 선호도 - 낮음

- 대안집합 : {... 보다, 왕래하다, 가깝게 지내다, 함께 살다 ...}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됨 - 감탄

(16) 그렇게 떠들다가 아이가 깨기라도 하면 어찌려고 그래요?

- 척도 구성 기준 :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선호도 - 매우 낮음

- 대안집합 : {... 놀라서 울다, 깨다, 계속 자다, 더 잘 자다 ...}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경계

- (17) 완전히 회복될 수 없어도 좋다. 아이가 깨어나기라도 하면 바람
것이 없겠다.
- 척도 구성 기준 : 희망하는 사태에 대한 선호도 - 높지 않음
 - 대안집합 : {현재 상태가 유지되다, 깨어나다, 말을 하다, 완
전히 회복되다 ...}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소망
- (18) 500만 원 짜리 구두를 사다니, 어디에 머리를 부딪히기라도 했니?
- 척도 구성 기준 : 선행절 행위를 할 만한 이유로서의 타당성
- 매우 낮음
 - 안집합 : {...머리를 부딪히다, 인생관을 바꾸다, 월급이 오르
다, 원래 부자다...}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반어질문, 비난
- (19) 500만 원 짜리 구두를 사다니, 복권에 당첨되기라도 한 모양이네.
- 척도 구성 기준: 선행절 행위의 이유로서 후행절 사태가 성
립할 확률 - 매우 낮음
 - 대안집합 : {... 복권에 당첨되다, 상속을 받다, 월급이 오르다 ...}
 - 사태 실현 여부 : 실현되지 않음 - 추측

위 예들에서 보듯이 ‘-기라도 하-’ 구문은 대안집합의 원소들 중 개연성, 가능성, 당위성, 적합성, 선호도 등의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거나 최저값을 가지는 항목에 쓰임을 알 수 있다. 즉 각 척도에서 최우선성을 가지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범위가 걸쳐있다. 어떠한 기준으로 척도를 구성하고 어떠한 원소들로 대안집합을 구성할지는 사태를 대하는 화자의 태도나 생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면 ‘-기라도 하-’ 구문을 통하여 해당 명제나 사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척도 구성 기준으로 제시한 개연성, 당위성, 적합성, 선호도, 빈도

등에 대한 판단은 ‘-기라도 하-’ 구문이 표시하는 명제 자체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고, 선·후행절 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 (2’), (3’), (11’), (18’), (19’)에서는 선·후행절 사태 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인 반면, (13’), (16’), (17’)에서는 해당 명제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보인다.

위 예에서 보았듯이 ‘-기라도 하-’ 구문으로 표시된 사태는 실제 세계에서 실현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비실현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는 해당 문장이 비유, 조건, 명령, 질문, 기원, 의지 등을 나타낸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기라도 하-’ 구문으로 표시된 사태는 대안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채택이 상정되어 있을 뿐 실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Ⅲ. 주요 출현 환경과 기능 및 중국어·일본어 대응 양상

제 II절에서는 ‘-기라도 하-’ 구문의 다양한 용례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된 기본 의미를 찾아 보려 하였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구문의 실제 사용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각각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어 교육이나 번역 등의 실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 긴요할 수 있다. 구문의 기본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실제의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한 쓰임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구문이 쓰이는 형식과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III절에서는 ‘-기라도 하-’가 쓰일 수 있는 구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맥락과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지를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일본어의 대응 구문 및 중국어의 대응 표현도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일본어의 경우 내부요소의 형태와 구성에서 한국어 ‘-기라도 하-’와

매우 유사한 ‘동사연용형(명사형) + ても + する’⁶⁾ 구성이 있으므로 전체 용례에 통일적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언어유형론적인 차이로 인해 형태와 구성이 동일한 표현을 찾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구문 대 구문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표현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어의 경우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어휘적, 문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비교적 가까운 의미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가 파악한 ‘-기라도 하-’ 구성의 대표적 쓰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앞의 제1절에서 이미 개략적인 유형을 보인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각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어와 중국어 예문과 함께 제시한다.

1. 비유

(20) 가. 그녀는 요즘 들어 복권에 당첨되기라도 한 듯이 돈을 펑펑 써댔다.

나. 她最近簡直就跟中了彩票似的 大手大脚地花錢。

(≒就跟中了彩票似的 / 簡直跟中了彩票似的)

다. ... 宝くじが当たりでもしたように...

(21) 誰ひとり口をきく者はなかった。一同は不安な気持ちで、今にも 眞実の一端が本当に現われでもするかのように待ち受けた。

(누구 하나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진실의 일단이 정말로 나타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다렸다.)

6) ‘동사연용형(명사형) + ても + する’ 구문과 ‘-기라도 하-’ 구문의 내부 구조를 비교하면, 동사연용형은 ‘V기’에, ‘ても’는 ‘-라도’에, ‘する’는 ‘하다’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비유는 한국어 ‘-기라도 하’ 및 일본어 ‘동사연용형+でもする’의 용례들 가운데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유형이다.⁷⁾ ‘-ㄴ 것처럼/듯이/양’ 자체로도 비유가 성립되지만 ‘-기라도 한 것처럼/듯이/양’으로 쓸 때 해당 명제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이 더 효과적으로 부각된다.⁸⁾ 중국어의 경우 ‘복권에 당첨된 듯이’처럼 무표적인 표현은 ‘跟中了彩票似的’인데 여기에 ‘就(곧, 바로)/簡直(그야말로, 참으로)/簡直就’ 등의 부사가 더해질 때 ‘기라도 하’ 구문과 의미적 대응의 적절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들 부사를 더함으로써 해당 명제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2. 조건 (반사실적 조건, 명령 조건 포함)

- (22) ㄱ. 또 눈이 오기라도 하면 전멸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ㄴ. 萬一再下雪的話, 就要做好全軍覆沒的思想準備了。
 ㄷ. また降りでもすれば全滅を覚悟せねばなるまい
- (23) ㄱ. 내가 돈이 많기라도 하다면 이렇게 주눅 들지는 않을 텐데.
 ㄴ. 哪怕我有點錢, 也不至於這麼畏縮。
 ㄷ. 私がお金がたくさんありでもすれば, こんな風に気おくれしないのに。
- (24) ㄱ. 개 털끝 하나 건드리기라도 해 봐. 내가 가만있지 않을 테니.
 ㄴ. 你敢動他一根汗毛試試! 我不會袖手旁觀的。
 ㄷ. あいつの毛先ひとつ触れでもしてみろ。私が黙っていないぞ。

7) 말뭉치 일부를 분석한 결과 일본어 ‘동사연용형+でもする’ 구성의 용례 91개 중 32개가 비유적 용법으로 나타났다.

8) 신혜정(2013)에서 이러한 사실을 흥미롭게 엿볼 수 있는데, 동일한 소설을 번역한 세 명의 번역가 중 한 명에서 ‘as if’에 대한 번역으로 ‘-(기)라도 + 직유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기라도 하’는 비유 표현에 쓰여 그러한 비유가 사실이 아님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데, ‘-기라도 하’ 구성을 쓸 것인지 쓰지 않을 것인지는 해당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라도 하-’와 ‘동사연용형+でもする’는 조건절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는데, 전체 용례 중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⁹⁾ 따라서 ‘-기라도 하-’의 활용형 중 ‘-기라도 하면-/기라도 한다면-’의 상대적 중요성이 드러나며 이는 한국어교육 등 응용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다.

(22)의 경우 ‘눈이 온다’는 것은 화자가 일어나기를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 즉 선호도 최저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함으로써 ‘경계’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즉, ‘또 눈이 온다면 전 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에 비하여 위기감과 피하고 싶은 마음을 한층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

(23)과 같이 현재 사실에 반하는 반사실적 조건문에 ‘-기라도 하-’를 쓰면 단순한 조건문에 비해 반사실성을 부각시키면서 ‘한탄’ ‘후회’ 등의 화용적 의미를 더해주기도 한다. 여기서 ‘돈이 많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주눅들지 않을 여러 여건 중 적어도 화자에게는 우선성이 떨어지는 것이기에 ‘-기라도 하-’ 구문으로 썼으며, 결과적으로 “내가 돈이 많다면”에 비하여 화자의 한탄스러운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24)와 같은 조건명령문에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선·후행절 간 양보의 뜻을 드러낸다. 주지하듯이 양보란 후행하는 내용이 선행하는 내용에 의해서 예상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4ㄱ)에서 선행절의 ‘털끝 하나 건드리다’라는 행위는 ‘가만있지 않는다’라는 후행절의 행위를 실행할 만한 이유들 중 타당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절의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보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처럼 조건절 사태가 척도상의 최하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라도 하면-’을 빼고 양보의 연결어미 ‘-어도-’로 연결해도 자연스럽다. 이는 일본어도 마찬가지이다.

9) 말뭉치 일부를 분석해 본 결과 일본어 ‘동사연용형+でもする’의 용례 91개 중 46개가 조건 용법으로 나타났다.

(25) ㄱ. 개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내가 가만있지 않을 거야.

ㄴ. あいつの毛先ひとつ(さえ)觸れても私が黙っていない。

조건절 사태가 척도상의 최하점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26ㄱ)에서 보듯 ‘-어도’와 교체하여 쓰기가 어색하다.¹⁰⁾ 양보의 뜻이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일본어도 마찬가지이다.

(26) ㄱ. 그분은 아랫사람이 반대하기라도 하면 노발대발 하신다.

ㄴ. ??그분은 아랫사람이 반대해도 노발대발 하신다.

(27) ㄱ. あの方は目下の者が反對しでもしたらかんかんになられる。

ㄴ. ??あの方は目下の者が反對してもかんかんになられる。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여 일본어 ‘동사연용형+でもする’ 구문은 조건 용법에서 거의 완전하게 ‘-기라도 하-’ 구문에 대응한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는 일관되게 등가로 대응되는 구문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각 문장의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표현을 찾아야 한다.

(22ㄴ)의 경우 문두에 ‘萬一’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을 나타내는 여러 접속사들 중 확률이 극히 낮거나 발생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에 주로 쓰인다. 한국어 ‘-기라도 하-’를 통해 표시된 경계, 바라지 않음의 의미를 ‘萬一’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3ㄴ)의 경우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인 ‘哪怕...也’를 써서 ‘-기라도 하-’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사태와 후행사태 간에 뚜렷한 양보의 의미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哪怕我有很多錢...也(돈이 많기라도 하다면)’ 대신 ‘哪怕我有點錢...也(돈이라도 좀 있다면)’

10) 이는 ‘아랫사람이 반대한다’라는 것이 화를 낼 이유로 그런대로 타당하기 때문인데, 만일 아래와 같이 보조사 ‘만’을 붙여 화낼 이유로서의 타당성을 매우 낮게 만들어 주면 양보 관계가 성립하므로 ‘-어도’로 연결할 수 있다.

i) 그분은 아랫사람이 반대만 해도 노발대발 하신다.

이라고 하여 선·후행절 내용 간에 예상을 벗어나는 양보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 있다. 만일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哪怕我有很多錢...也’라고 하였다면 어색한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으면 주눅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선·후행절 사이에 양보의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기라도 하-’와 ‘동사연용형+でもする’가 가능한 이유는 해당 절에 표현된 명제인 ‘돈이 많다’는 것이 대안집합의 원소를 가운데 최우선향이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데서 생겨나는 숨은 양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모임에 갔는데 자기 빼고 다른 사람은 다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잘 생겼고 멋지다. 이 사람은 위축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내가 돈이 많기라도 하다면 이렇게 주눅 들지는 않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즉, 이 경우 돈이 많다는 것이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니고 다소 도움이 되는 정도인 것이다. 중국어의 ‘哪怕...也’는 이런 숨은 양보관계까지 표시할 수는 없고, 선·후행절 사이의 논리적 양보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날 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4ㄱ) 한국어 예문에서는 ‘-기라도 하-’를 씌으로써 ‘위협’을 표시하였는데 (24ㄴ) 중국어 대응표현에서는 ‘敢(감히, dare)’이라는 부사를 씌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다. ‘-기라도 하-’가 위와 같은 기능을 획득하는 것은 타당성이 최저인 경우라도 후행절 행위를 실행한다는 양보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중국어의 양보표현 ‘哪怕...也’는 명령문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敢’과 같은 다른 어휘적 수단을 통해서 의미적 등가를 이룬 것이다.

3. 의문

(28) ㄱ. 왜? 누가 널 때리기라도 하니?

- ㄴ. 為什麼? 難道是誰要打你。
- ㄷ. なんで? 誰かがお前を叩きでもするの?

- (29) ㄱ. 저 사람 왜 저러지? 뭘 잘못 먹기라도 했나?
 ㄴ. 他怎麼那個樣子呢? 該不會/難不成/難道吃錯藥了。
 ㄷ. あいつはどうしたんだ? 何か悪いものを食べでもしたか?

- (30) ㄱ. 그래서 어쩔 거야? 물에 뛰어들기라도 할 거냐?
 ㄴ. 所以打算怎麼辦? 該不會是想跳進水里吧?
 ㄷ. それで、どうするの? 水に飛び込みでもするの?

- (31) ㄱ. 왜?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할까 봐 그러냐?
 ㄴ. 怎麼了? 難不成是怕我把你吃了才那樣?
 ㄷ. 何? 私が君を取って食いでもするかと思って(そうなのか)?

‘-기라도 하-’는 의문문에서도 폭넓게 쓰인다. (28), (29), (30)에서 각각 현재·과거·미래에 대한 물음에 쓰였고, (28)처럼 청자에게 묻는 물음, (29)처럼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에도 쓸 수 있다. 또 (30)처럼 청자의 미래 행위 실행 의지를 묻는 물음, (31)과 같이 청자의 생각을 묻는 물음이 두루 가능하다. 일본어의 ‘동사연용형+でもする’ 역시 이처럼 다양한 의문문에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예는 평범한 태도 중립적 질문이 아니라 사태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반어법적 효과를 가지며 나아가 청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꼴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역시 ‘-기라도 하-’가 가지는 ‘우선성 낮음’의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는데, 우선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채택을 상정하여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내재된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어는 이 유형에서도 한국어와 거의 그대로 대응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뜻을 가지는 ‘難道/該不會/難不成’ 등의 표현을 붙여서 이러한 의미를 보충한다.

4. 명령, 요구

(32) ㄱ. 이길 수 없다면 비기기라도 해라.

ㄴ. 贏不了的話, 那就打個平手吧。

(哪怕打個平手也行。)

ㄷ. 勝てないなら引き分けでもしなさい。

‘-기라도 하-’와 ‘동사연용형+でもする’는 명령문에서도 쓰인다. 이때는 단순한 명령이라기보다는 화자가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 또는 차선책을 지정해 주는 것이므로 종종 ‘아쉬움’이나 ‘비난’, ‘핀잔’ 등의 어기가 들어가기도 한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32ㄴ)의 “那就打個平手吧”와 같이 명령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비록 양보의 접속사는 없지만 부사 ‘就’를 씀으로써 ‘최선책은 아니라도’라는 뜻을 살릴 수 있다. 또 명령문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哪怕打個平手也行(비긴다 해도 괜찮다)”과 같이 ‘哪怕…也’ 구문을 쓸 수도 있는데, ‘哪怕¹¹⁾’는 중국어에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고 ‘也’는 한국어 보조사 ‘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부사이다.¹²⁾ 따라서 양보와 첨가의 뜻을 가지는 보조사 ‘-라도’와 구성면에

11) 중국어의 ‘哪怕’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한국어의 ‘-(이)라도’, ‘-어도’, ‘-더라도’ 등과 대응할 수 있다. 쓰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哪怕只是一天, : 단 하루라도,
哪怕不是現在, : 지금이 아니라도,
哪怕要花點時間, :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哪怕沒有騎白馬, : 백마를 타지 않았어도,
哪怕知道這樣不行, : 안 되는 줄 알면서도,
哪怕失敗也別退縮. : 실패해도 위축되지 마라

12) 관련하여 박진호(2015: 376)에서는 “선택된 요소와 선택되지 않은 대안집합 내의 기타 요소 사이의 관계를 일정하게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장치가 있을 수 있다. 선택된 하나와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두 요소를 선택하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복합문에서 나타낼 수도 있다.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이 관계를 주로 부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소로 표현한다. 반면에 한국어나 일본어는 이 관계를 주로 조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소로 표현한

서도 꽤 유사하다. ‘비긴다(打個平手)’는 것은 선호도가 낮은 일임에도 ‘괜찮다(行)’고 하는 데서 양보의 의미가 성립하는데, 이처럼 선·후행 절 사이에 양보 관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哪怕…也’와 ‘-기라도 하-’가 꽤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哪怕…也’를 명령문 형식으로 쓰기는 어렵다.

5. 청유, 권유

- (33) ㄱ. 매일 운동하기가 어렵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라도 하자.
- ㄴ. 如果很難做到每天都運動的話, 那就早上早點起床吧.
- ㄷ. 毎日運動するのが難しい場合は、朝に早起きでもしましょう.

이 경우에도 명령과 마찬가지로 차선택 또는 최저선을 지정해 주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안타까움’, ‘자조’, ‘비난’ 등의 태도가 실릴 수 있다. 일본어의 ‘동사연용형+でもする’는 청유문에서도 ‘-기라도 하-’에 대응하여 거의 유사한 뜻으로 쓸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就’를 추가해 주면 ‘최상의 방법은 아니지만’이라는 뜻을 살리면서 청유문으로 쓸 수 있다. ‘哪怕…也’ 양보 구문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것은 역시 앞뒤 문맥이 양보 관계로 이어지는 예가 아니기 때문이다.

6. 소망·바람

- (34) ㄱ. 우승은 차치하고, 결선에 올라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 ㄴ. 別說贏了, 哪怕能進決賽也好.
- ㄷ. 優勝は置いておいて、(せめて)決勝に上がりでもしたらいいな.

다. 한국어의 이러한 조사를 보조사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35) ㄱ. 오늘 소개팅인데, 수염을 깎기라도 좀 하지.

ㄴ. 오늘 소개팅인데, 수염 좀 깎지.

ㄷ. 今天相親, 你起碼/至少得刮個鬍子呀.

ㄹ. 今天相親, 你刮個鬍子呀.

ㅁ. 今日合コンなのにせめて鬍をそりでもしなよ.

위와 같이 ‘-기라도 하-’와 ‘동사연용형+でもする’는 소망을 나타내는 문장에도 쓰일 수 있다. 다만 가장 바람직함, 혹은 선호도 최상의 소망은 아니고 그것보다 덜 바람직하거나 덜 소망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차선의 소망을 표시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진짜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안타까움’이나 ‘비난’, ‘자조’ 혹은 ‘자포자기’의 뜻이 실릴 수 있다. 한편, (34ㄴ)의 경우 ‘결선에 올라가게 되다(能進決賽)’와 ‘좋겠다(好)’ 사이에 논리상 양보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중국어 ‘哪怕...也’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35ㄴ)처럼 ‘起碼/至少(적어도)’ 같은 부사를 넣어 ‘최선은 아니지만’이라는 뜻을 추가할 수 있다.

7. 의무

(36) ㄱ. 일을 잘 할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하기라도 해야 한다.

ㄴ. 如果沒能力把事情做好, 那起碼/至少得努力去做呀.

ㄷ. うまくやる能力がないなら, 一生懸命やりでもしないといけない.

‘-기라도 하-’는 소망, 청유, 명령 등의 용법과 마찬가지로 의무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도 역시 가장 선호되는 수준의 것이 아닌 차선의 정도를 제시한다. 일본어 ‘동사연용형+でもする’ 역시 이러한 용법으로 쓸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어휘적 수단으로 이러한 뜻을 보충하는데 ‘열심히 해야 한다’에 ‘적어도/최소한’의 뜻을 가지는 ‘起碼/至少’ 등을 보태었다. 역시 상황에 따라 ‘비난’,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 있다.

8. 의지

- (37) ㄱ. 피를 팔기라도 해서 아이들 교육은 시키겠다.
 ㄴ. 哪怕是賣血, 也要讓孩子接受教育。
 ㄷ. 血を売りでもして子供たちの教育はしないと。

미래 행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에도 ‘-기라도 하-’와 ‘동사 연용형+でもする’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 정서에 맞지 않을 만큼 극단적이거나 개연성이 떨어지는 사태를 제시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어떤 행위를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에는, ‘피를 팔아서라도’와 같이 보조사 ‘-라도’를 수단 부사절 ‘피를 팔아서’에 붙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는 하다. ‘피를 팔아도 아이들 교육은 시키겠다’와 같이 선후행절 사태 간에 양보 관계가 성립하므로 중국어의 ‘哪怕...也’를 쓸 수 있다.

9. 기타 - 감탄, 대조의 부각

- (38) ㄱ. 살아있으니 이렇게 보기라도 하는구나/하네!
 ㄴ. 因為活着, 所以至少能這麼看着啊!
 ㄷ. ??生きているからこうして会いでもするんだね.
- (39) ㄱ. 너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곁에 있기라도 했지, 나는 아무것도 못 했다.
 ㄴ. 爸爸去世的時候, 至少你在他身邊, 而我麼都沒做。
 ㄷ. ??あなたはお父さんが亡くなる時そばにいでもしたじゃない.

‘-기라도 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태가 실현되거나 실현이 결정됨에 대한 감탄을 나타내기에도 적절하다. (38ㄱ)은 ‘새로이 알게 됨’

혹은 ‘감탄’을 표시하는 종결어미 ‘-네/-구나’ 등과 함께 쓰여서 기대하는 일이 최상의 수준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뜻밖에 실현되거나 혹은 실현이 예정된 데 대한 감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39ㄱ)의 경우, 두 사태를 대비할 때 ‘-기라도 하-’ 구문을 씀으로써 어느 한쪽의 열등함을 더 강하게 부각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비교의 대상이 척도의 최상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열세이기 때문이다.

이들 예는 실현된 사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예문들과 다른데, ‘-기라도 하-’는 이처럼 실현 사태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빈도는 비실현 상황에 비해서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아래 (40)과 같이 단정적인 서술로 실현 사태를 나타낼 때 ‘-기라도 하-’를 쓰면 문맥이 완결되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예문 (40)을 (41)과 같이 대비의 맥락으로 쓰거나 (42)와 같이 ‘새로 알게 된’ 상황으로 표현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기라도 하-’가 가지는 의미는 실현된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매우 유표적임을 알 수 있다.

(40) ?이 마을은 버스가 다니기라도 한다.

(41) 이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달리 버스가 다니기라도 한다.

(42) 이 마을은 버스가 다니기라도 하네!

실현 사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기라도 하-’와 거의 완벽한 대응을 보여 왔던 일본어의 ‘동사연용형+でもする’가 위 (38ㄷ), (39ㄷ)에서 보듯 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매우 어색하다는 점이다.¹³⁾ 위에서 살펴본 3.1~3.8의 예는 ‘-기라도 하-’가 비유, 조건, 의문, 명령, 청유·의무·의지 등 모두 비실현 사태를 나타내는 문장에서 쓰인 경우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라도 하-’가 빈도 면에서 비실현 사태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고 용법도 더

13) 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모어 화자의 직관상 자연스럽게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지만, 실현된 사태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일본어 ‘동사연용형+でもする’는 비실현 사태에서 쓰이는 경향이 한국어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그 자체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IV. 나가기

이상에서 ‘-기라도 하’가 가지는 기본 의미와 주요 출현 맥락 및 기능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말뭉치를 통하여 구문의 실제 사용 예문들을 충분히 관찰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공통 의미를 도출하려 하였다. 제2절에서 우리는 ‘-기라도 하’ 구문의 기본 의미를 ‘선택의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 상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택의 우선성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개연성, 당위성, 타당성, 가능성, 선호도’ 등을 상정한 뒤, 이를 다양한 ‘-기라도 하’ 구문에 적용해 봄으로써 앞서 제시한 기본 의미 및 척도 설정이 이 구문의 다양한 쓰임을 일관된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제3절에서는 ‘-기라도 하’가 전형적으로 쓰이는 문장의 형식과 맥락을 파악하고 각각의 경우에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즉 비유, 조건, 의문, 명령·요구, 청유·권유, 소망·바람, 의무, 감탄·대조 등의 형식과 맥락에서 주로 쓰임을 보였다. 이들은 대부분 비실현 사태를 나타내는데, 감탄·대조 등 일부 예들에서는 실현 사태에 쓰일 수 있음을 보였다.

제3절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나 번역 등 실용적 측면에의 응용을 고려하여 일본어 및 중국어의 대응 형식을 함께 알아보았다. 일본어의 경우 ‘-기라도 하’와 형태적 구성 면에서 매우 유사한 ‘동사연용형+でもする’가 있고 이 둘이 분포와 기능에서 대체로 일치함을 보였다. 단, 비실현 사태에서 쓰이는 경향은 일본어의 ‘동사연용형+でもする’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의 경우 언어유형론적 차이로 인해 형태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진 구문을 찾기 어렵고 따라서 모든 쓰임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표현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다만 문장의 선·후행 명제 사이에 ‘양보’의 의미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哪怕...也’와 비교적 잘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이 있다면 ‘-기라도 하-’와 ‘동사연용형+でもする’의 경우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 상정’이라는 기본 의미에서 비롯되는 숨은 양보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의 ‘哪怕...也’는 그러한 숨은 양보 관계까지 표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就/起碼/至少(곧, 적어도)’, ‘敢(감히)’, ‘萬一(만일)’ 등의 어휘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때그때 비슷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구문의 의미는 많은 경우 구성 요소들의 의미의 단순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의미의 확장 과정에서 원형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라도 하-’ 구문의 의미는 매우 특수하면서도 대체로 투명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형식의 문장에서 다채로운 쓰임을 가지지만 기본 의미와의 연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연구와 같이 기본의미와의 연계 아래 각각의 쓰임을 해석하는 방식이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의미를 안다고 해서 모든 맥락에서의 쓰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어교육 현장 등에서의 실제적 적용을 생각할 때 기본의미를 교수 학습에 바로 적용하여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방식과 수준으로 적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과 출현 맥락, 그리고 기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문 의미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실용적 방면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기라도 하-’와 일본어 ‘동사연용형+でもする’는 내부 요소들 각각이 형태적으로 대응되고 구문 전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기능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

서 한·일간 번역이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시 구문 내부 요소들 각각의 대응 관계를 밝혀 주고 구문이 가지는 여러 용법들에 대하여 전형적인 예문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사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 ‘-기라도 하-’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을 찾기 어려우므로 각 유형별 쓰임에 따라 적절한 대응 표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기라도 하-’가 가지는 기본의미인 ‘우선성이 낮음에도 채택 상정함’의 뜻에 바탕을 두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기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대응시켜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김일환, 명사형 어미 ‘-기’의 특이성, 『한국어학』 28, 2005.
- 박재연,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9.
- 박재연,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 43, 2009.
- 박병선·박진호, 서법의 정의 및 한국어 서법 범주의 체계화, 제 19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 1999.
- 박진호,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2015.
- 서정수, 『국어문법』, 뿌리깊은 나무, 1994.
- 신혜정, 클러스터 분석을 활용한 번역가 선호표현 연구 -보조사 ‘-라도’+직유표현을 중심으로, 『영미연구』 제30집, 2013.
- 이희자·이종희, 『풍부한 관용구를 수록한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06.
-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2008.
- 임동훈,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2015.
- 함병호,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동악어문학』 60, 2013.
- 홍윤혜, 보조사 ‘-(이)라도’의 의미와 분포적 특성 -‘-(이)나’와 ‘-(이)나마’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8-2, 2007.

❖ ABSTRACT

On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kilato ha-
constructions, supplemented by comparison with
Japanese and Chinese counterparts

Sim, Jiyoung
Sejong University

Bao, Juan
Seoul National University

Enkai, Moe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inh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sic meaning of -kilato ha- is “supposing selecting an op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it is not the best one.” It is based on the meaning of the delimiter -lato (non-best option) and that of the nominalizer -ki (supposition of an irrealis state-of-affairs). This basic meaning is modulated and realized in various ways in constructions expressing simile, condition, question, order/request, proposal/advice, hope, obligation, etc. Though it is used mainly in irrealis constructions, -kilato ha- can also be found in realis constructions, e.g. in constructions expressing exclamation or contrast. Renyoukei+demo+suru in Japanese is markedly similar to -kilato ha- in morphology and semantics, but it prefers irrealis to realis much more than -kilato ha-. As Chinese is markedly different from Korean in the typological respect, you cannot find an exact

counterpart of -kilato ha- in Chinese. However, the *nǎpà...yě* concessive construction can express similar meanings, and adverbs such as *qǐmǎ/zhishǎo* or *jiù* can express the meaning “non-best option”.

Key Words : alternative set, scale, (non-) actualization, priority of selection, (non-) best option

■ 논문접수일 : 2020. 08. 10

■ 심사완료일 : 2020. 09. 13

■ 게재확정일 : 2020. 09. 14

